우암학원 창학 73주년
WCC 세계적인 전문대학 선정!!
전남과학대학교
CHUNNAM TECHNO UNIVERSITY

光州日報
71 SINCE 1952

FELICE 승원 팰리체
승원건설그룹

1952년 4월 20일 창간 제22018호 1판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음력 4월 14일 2023년 6월 2일 금요일

글로컬 대학 선정 '5쪽짜리 전쟁' 시작

교육부, 2026년까지 30곳 뽑아
1개교 당 5년간 1000억원 지원
광주·전남 14개 대학 신청서 접수
'5쪽 이내 혁신기획서'에 달려
"선정 안 되면 고사할 것" 우려
산업구조 취약 호남권 대학 불리

코로나 끝? 구청 민원실 가림막 철거 1일 광주 북구청 세무과 민원담당 직원들이 코로나19 거리두기로 인해 설치했던 아크릴 가림막을 3년 4개월 만에 철거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0시를 기해 코로나19 위기 경보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했다. /나명주기자mjna@kwangju.co.kr

'5쪽짜리 전쟁이 시작됐다.'

1일 광주·전남지역 대학가에 따르면 교육부가 선정하는 '글로컬대학30' 신청이 지난 31일 마감됐다. 이 사업은 혁신역량을 갖춘 지역 대학을 올해부터 2026년까지 30곳 뽑아 글로컬 대학으로 지정해 1개교당 5년간 1000억원을 파격 지원하는 게 골자다. 지방대 육성사업으로 비수도권 대학이 대상이다.

교육부가 기존 형식을 파괴하기 위해 신청 대학에 '5쪽 이내 혁신기획서'를 요구해 '5쪽짜리 전쟁'으로 불린다. 학교당 지원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 일각에서는 글로컬 대학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방대는 고사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사실상 '살생부'가 될 것이라는 얘기다.

교육부는 세부적으로 ▲지역혁신을 위한 산학협력의 허브 역할 ▲대학 안-밖, 대학 내부의 경계를 허무는 유연한 대학 운영 ▲브랜드 가치를 지닌 선도대학으로 성장하기 위한 중장기 혁신 계획 ▲대학의 운영 성과 및 지역사회 기여도의 투명한 공개 등 대학 내부 구조·운영 개선방안이 혁신기획서에 담겨야 한다고 가이드 라인을 제시했다.

광주에서는 전남대, 조선대, 광주교대, 광주대, 호남대, 광주여대, 송원대, 남부대 등 8개 대학이 신청서를 냈다. 조선대는 혁신기획서에 조선간호대학과 통합 추진을 포함시켜 주목된다. 같은 법인 산하 대학이지만 대학 간 통합은 광주 사립대 가운데 처음이다.

전남에서는 목포대, 순천대, 동신대, 목포해양대, 초당대, 순천제일대가 신청서를 접수했다.

광주·전남지역에서는 글로컬대학30 사업과 맞물려 대학 통합 움직임이 일고 있어 관심을 모은다. 정부가 글로컬대학 사업 추진방안에서 대학 간 통합을 강조하고 있어서다.

조선대와 조선간호대학의 통합 추진을 계기로 목포대,순천대가 전남도립대와 통합을 위해 실무적으로 논의를 가졌거나 폭넓게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전국적으로는 부산대와 부산교대, 안동대·경북도립대 등 전국 10개 대학이 통·폐합을 추진하거나 논의하고 있다.

교육부는 각 대학이 제출한 혁신기획서를 바탕으로 이달 중으로 15개교 내외를 글로컬대학으로 예비 지정할 계획이다. 글로컬대학위원회와 교육부는 평가·심의를 거쳐, 10월 10개 내외의 글로컬 대학을 본지정할 방침이다.

광주·전남지역에서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교육부가 올초 선정한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시범 지역에 가산점(10점)을 부과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라이즈'의 핵심은 2024년부터 대학 재정지원 사업 예산 2조원 이상의 집행 권한을 지자체에 넘기는 것이다. 중앙부처가 도맡던 대학 지원 방식을 지역 주도 방식으로 새롭게 전환해 지자체와 대학이 상생 방안을 찾으라는 주문이다.

하지만 전남은 라이즈 선정 7개 지자체에 포함된 반면, 광주는 탈락했다. 사실상 광주는 지자체의 지원 의지에서 점수를 받지 못했다.

광주 A대학 관계자는 "광주시가 라이즈 사업에서 탈락했기 때문에 대학들이 불이익을 받을까 우려하고 있다"며 "이는 사실상 글로컬대학 신청 대학들에게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뛰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글로컬대학30'에서 요구하는 산학협력의 허브 역할도 광주·전남에는 불리한 조항이다. 이는 기업과 협력을 바탕으로 산업생태계를 구축해 지역대학 출신 인재들이 지역에 머물게 하는 구조를 창출하는 게 핵심이다. 문제는 광주·전남을 비롯한 호남권은 부산, 영남권 보다 산업생태계가 열악하다는 데 있다. 지역인재들이 취업을 희망하는 기업체가 손꼽을 정도로 적어 청년들을 위한 정주여건이 취약하다는 한계가 있다.

B대학 관계자는 "글로컬대학 사업에 맞춰 산학협력 모델을 만들 기업을 지역에서 찾기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광주·전남 대학들이 절대 불리한 상황"이라면서 "정부가 산업간 불균형, 지역발전도 등을 고려하지 않고 지원대학을 선정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가 글로컬대학 예비 지정 신청을 마감한 결과 모두 108개교가 94건의 신청서를 냈다. 글로컬대학은 비수도권 대학(166개교)만 신청할 수 있는데, 그중 65.1%가 글로컬대학 지정에 도전한 셈이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8개월째 수출 감소·15개월째 무역 적자

5월 수출 1년 새 15.2% 줄어

반도체 경기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 경제의 주요 버팀목인 수출이 8개월 연속 감소했다. 무역적자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가장 긴 15개월째 이어졌다.

다만 휴일을 뺀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에서 개선 조짐을 보이고, 무역적자 규모도 계속 축소돼 하반기 흑자 전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5월 수출입 동향을 발표했다. 5월 수출액은 522억4000만 달러로, 작년 같은 달보다 15.2%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월간 수출은 작년 10월부터 8개월 내리 작년 동월 대비 감소했다. 2018년 12월~2020년 1월 이후 가장 긴 연속 수출 감소다.

단일 품목 최대 수출품인 반도체 부진이 전체 수출 부진을 낳는 흐름이 계속됐다.

5월 반도체 수출액은 73억7000만달러로 작년 같은 달의 115억4000만달러보다 36.2% 감소했다. 반도체 한 품목에서만 1년 새 42억달러 가까이 감소했다. 반도체 수출 증가율은 작년 8월 이후 10개월째 마이너스다.

특히 한국 기업의 주력 품목인 메모리 반도체의 5월 수출은 34억1000만달러로 작년 동월(72억8천만달러) 대비 53.1%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적으로 스마트폰 등 정보기술(IT) 제품 판매 부진으로 반도체 수요가 감소한 상황에서 D램 고정가는 작년 6월 3.35달러에서 지난달 1.40달러로, 낸드 고정가는 작년 5월 4.81달러에서 지난달 3.82달러로 내려간 상태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피해자가 관할 시·도에 신청
첫 피해 인정 월말 께 나올 듯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1일 시행됨에 따라 특별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를 인정하는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지방자치단체들이 받아둔 사전접수를 포함해 첫날 795명의 임차인이 전세사기 피해 인정을 신청했다.

관건은 임차인들의 고통을 덜 수 있는 빠른 피해 인정으로, 첫 피해자 인정은 이달 말께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이날 오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에서 발족식을 한 뒤 바로 1차 위원회를 열었다.

피해지원위원회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결정하고, 경·공매 기일이 임박해 피해자 인정을 기다리기 어려운 임차인을 위한 경·공매 유예·정지를 법원에 요청하는 역할을 맡는다. 위원회는 첫 회의에서 매각기일이 도래한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주택 182호와 부산 진구 60호에 대한 경·공매 유예·정지 협조 요청을 의결했다.

위원회가 법원에 요청하면 3개월간 경매 유예·정지가 가능하며 기간은 3개월씩 연장할 수 있다. 위원회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요청할 경우 최대 1년간 경매가 미뤄진다.

지금까지는 금융당국이 은행 등 금융기관과 채권추심업체들에 경매를 유예해달라는 행정 지도를 해왔는데, 정부가 직접 법원에 유예를 요청하면 더 직접적인 효력을 볼 수 있다.

특별법 지원이 필요한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신청해야 한다. 시·도는 30일 내로 조사를 마치고 결과를 국토부로 넘겨야 한다. 광주와 전남지역 피해자는 각각 광주시청 주택정책과(062-613-4832), 전남도 건축개발과(061-286-7721)로 신청하면 된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오염수 방류, 방사능 검사 매뉴얼이 없다 ▶6면
북스 - '나를 알고 싶어서 그림책을…' ▶14·15면
KIA 마운드 젊고 강해졌다 ▶18면

윤영철

사랑과 감사의 69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3]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The new EQS SUV
당신이 찾던 럭셔리의 미래.
This is for pioneers.
MERCEDES-EQ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062)226-0001 & 화정 서비스센터 062)376-2556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화정동)
광주 수완 전시장 062)716-5001 & 광주 인증중고차 전시장 062)945-0007 & 수완 서비스 센터 BP 062)942-7200 / GR 062)961-0090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565(도천동)
정부 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 EQE 350+ 복합 에너지 소비효율(전기:km/kWh) : 4.3(도심: 4.5, 고속도로: 4.1) 1회 충전거리(km) : 471, 공차중량(kg) : 2355, 배터리 용량(kWh) : 88.8
※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 상태, 운전 방법, 차량 적재 및 정비 상태 등에 따라 실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상기 제품 이미지는 실제와 다를 수 있으며, 사양 및 구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